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31



현옥순 · (재)서울법대장학재단 명예이사 · 법대 54학번

오늘부터 꾸는 새로운 꿈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졸업을 축하하고 졸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서울법대를 떠나는 날입니다. 외국에서는 졸업식을 Graduation이라는 단어 대신에 Commencement라고 종종 표기합니다. 졸업생들에게 오늘은, 인생의 한 매듭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실무가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 어떤 길을 가건, 여러분이 서울대 법대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을 떠나보내며, 여러분의 선배로서 두 가지 조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같이 일하고 싶은 법률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선 법률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같이 일하고 싶은 법률가는 실력이 뛰어난 법률가, 법령과 판례를 잘 아는 법률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법률가가 되려면 이에 더하여 다른 사람과 경쟁만 하기보다는 협력하려는 태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동료에 대한 배려심 등을 함께 갖춘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법조인 또는 법학 교수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동료 및 후배 법률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지적으로 우수하고 혼자서 일을 잘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보다, 그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직역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졸업생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조언은 앞으로 학자의 길을 걷거나, 법률실무에 종사하더라도 글을 쓸 기회가 있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특히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길에 입문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놓치지 말고 계속 글을 쓰고 발표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여러분은 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몇 개월에 걸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만들어 낸 수십, 또는 백 페이지가 넘는, 자기 자식 같은 느낌이 드는 논문 챕터를 지도교수님이나 심사위원님의 단 한마디 지적에 학위논문에서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위논문에서 제한적으로만 다루었던 주제를 본격적으로 심층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새롭게 품게 된 문제의식을 글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과 문제의식을 학위를 받았다고 망각해버리지 말고, 학위논문을 쓰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 학위 논문의 체제에 맞지 않아 덜어 냈던 소중한 조각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자기의 글로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 글을 지도교수로서 지도해 주실 교수님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동료학자로서, 여러분들이 학문적 성과를 이루거나 다른 동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법률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응원하면서 지켜볼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금 서울법대 졸업식장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직역에서 활동하든지 상관없이, 서울법대에서의 배움과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더 크게 갚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서울법대에 처음 입학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꿈을 떠올려 보십시오. 입학 당시의 꿈, 아니면 서울법대 속에서 더욱 진화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지금부터 다시 꾸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동안의 자신의 노력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졸업생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비결을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꿈을 꾸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꿈에서 절대 깨어나지 마세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합니다.

2019. 8. 2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 승 화 원장



후배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땐 세상이 다방면으로 혼란했어요.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해방, 6.25 전쟁 발발, 그래도 저는 끝까지 공부를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을 때도 영도 천막교실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했어요”

공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현옥순 동문(법대 54회)은 1933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2남 1녀의 장녀로 태어나, 경기여중·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경제학을 공부하던 그녀가 법학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전쟁 이후 불안정했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법학자인 부친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상과대학 3학년 재학 중 법과대학 여러 교수가 그녀의 소질에 주목하여 법학을 공부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법대 행정과로 편입학하여 법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법과대학에 편입할 때 면접을 보았는데, 저는 우리나라를 개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당시에 여성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힘든 시기였어요. 학교 시설이 좋지는 않았지만, 여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언제나 상황을 탓하지 않던 그녀는 당시 법과대학 정원 300명 중 여학생은 10여 명에 불과했으나, 그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다. 당시 국제법을 가르친 이한기 교수는 자신의 지도를 받으며 학문을 계속하지 않겠냐고 권할 정도로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법대 졸업식에 참석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소유권에 관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나라 법제가 완전하지 못하여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국민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러한 부친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졸업 후 일본 동경대 교수에게 직접 찾아가 가르침을 청할 정도로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었던 그녀였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 문제와 여러 가지 형편상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하여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은 꺾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미 영사관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했어요. 나에게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매번 그것을 돌려주느라 고생하고 나니 일에도 싫증이 났죠. 인사과에 찾아가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예 그만두고 수녀원에서 한글 교사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일을 쉬다가 막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다시 상지대학교에서 교양 영어를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한편으로는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가졌던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자신이 꼭 돕겠다고 생각해 왔다. 슬하의 자녀들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것을 계기로 법대동창회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후배들이 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법대에 총 2억 8천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였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법대에 진학하여 마음껏 공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대재단에 모인 기금이 너무 적어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부할 생각입니다. 법대에 장학금을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1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자신의 통장을 건네며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기부한 그녀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저는 일제 강점기에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법을 해방 후에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던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오늘날의 실정에 맞도록 법제를 고쳐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재판 실무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후배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리라 믿습니다.”

기사 작성 | 법학발전재단 조형법,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김범준·3학년(10기) 최고은 학생기자



오영호(좌) · 심준섭(우) 학생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대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는 총 41개에 달하는 다양한 학회, 동아리 등의 자치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9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두 동아리, 헬스 동아리 ‘헬로’와 문학 동아리 ‘심난’을 소개하고자 한다.

Q.—— 자치단체 이름의 의미를 알려달라.

헬로 창립자 심준섭(법학전문대학원 10기, 이하 ⑤): ‘헬로’는 헬스 로스쿨이라는 뜻이다. 단순히 운동만을 함께 하는 동아리를 넘어서,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공유하는 모임이다.

심난 창립자 오영호(법학전문대학원 10기, 이하 ⑤): ‘심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심신이 지친 당신을 위한 피난처’의 줄임말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心) 속에 난(蘭) 한 그루씩을 키우면서 살자”는 의미다.

Q.—— 설립 계기 및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⑤ 로스쿨에 와서 한 학기를 보낸 후, 체력이 빨리 고갈되면서 운동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목표 체지방률을 설정해두고 한 학기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니 몸의 변화가 생겼다. 그 후 운동에 관심은 있으나 어렵다고 생각했던 학우들이 나의 변화를 신기해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같이 운동하고, 학우에게 편하게 서로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헬로를 창립하게 되었다.

⑤ 법서가 아닌 다른 책들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문학이라는 매개를 이용해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법학이라는 학문은 흑과 백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회색지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속 이러한 사고방식만을 강화하다 보면, 자칫 세상 모든 것을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고에 익숙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문학을 통해 보다 풍요롭게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

Q.—— 지난 1년간 동아리에서 한 활동은 무엇인가?

⑤ 운동모임에서는 다양한 운동들을 접한다.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운동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경험이 보다 적은 사람에게 이런 운동도 있음을 알려주고 ‘함께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점심모임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 가끔 영양이나 건강관리, 스트레칭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기도 한다.

⑤ 심난은 독서 모임과 문집 발간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다. 특별한 점은 발제 없이 자유롭게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있다. 더 나아가 2019년 여름, 2019년 겨울 총 2권의 문집을 발간하였다. 심난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글을 받고 있다. 주제 제한 없이 각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Q.—— 창립자로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거의 다 지켜졌는가? 동아리 운영과 관련하여 뿌듯했던 순간이나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건강식을 먹으면서 친목을 다지고 지식을 공유하며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큰 목표는 다 지켜졌다. 운동을 좋아하는 학우들이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거나, 운동을 잘 몰랐던 학우가 운동이 생활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 뿌듯하다.

⑤ 독서 모임과 문집 발간 등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기쁘다. 특히 우리의 이름이 담긴 문집을 처음 받을 때 매우 감동적이었다. 서울법대 문학회였던 ‘피데스’의 정체성을 계승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으나, 피데스의 명맥이 거의 2, 30년 전에 끊긴지라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 아쉬웠다. 그럼에도 회원들이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했다.

Q.—— 창립자로서 남기고 싶은 말은?

⑤ 헬로가 앞으로도 잔존하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희망한다. 창립자로서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출자를 하는 등으로 더 많이 돕고 싶다. 헬로의 헬스는 웨이트 운동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건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지치고 힘든 로스쿨 생활 속에도 건강이 깃들기를 바란다.

⑤ 심난을 통해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기대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문재 시인의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집 중 “사막”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사막에는 모래보다 많은 것이 있다. 그것은 모래와 모래 사이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목표들의 ‘사이’ 역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10기) 김영서 · 정수아 학생기자

퇴임이 아닌 새로운 시작



김건식 교수는 33년 동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학계에서 회사법 연구에 매진했고 출범 초기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기도 한 명실상부한 서울법대의 원로 교수다. 만 31세 교수부임 당시 대학원생으로 오해했을 정도의 청년 시절부터 긴 세월 동안 강단을 지켜온 노교수.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한편으로는 걱정,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청년 시절로 돌아가도 교수를 택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한 치의 고민도 없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당연히 교수를 택합니다. 하고 싶은 연구에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특히 일생을 서울대에서 보내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혜택 받은 삶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라며 그동안의 보금자리였던 학교와 동료 교수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교수로서의 삶에 대한 질문은 상법을 전공으로 선택했던 이유로 이어졌다. “4학년 때 상법연습 수업에서 첫 번째로 발표를 했는데, 정희철 교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법을 선택하게 됐네요. (웃음)” 한편으로는 그러한 경험을 돌이켜보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교수로서 학생을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 후회되기도 합니다.”며 회상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교수는 학문의, 그리고 학교의 징검다리입니다. 선배 교수님들과 후배 교수님들 사이에서 나도 둘 하나를 더 놓아서 후배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수의 역할입니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계속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특히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회사법 책을 쓰고 싶습니다.”라며 학문에 대한 삶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초기 원장을 맡기도 한 그에게 당시 로스쿨은 어떤 점을 지향했을까? 그리고 지금의 재학생들에게 어떤 점을 당부하고 싶은 까? 먼저 로스쿨 출범 초기부터 함께 해온 그에게 그때의 생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임하기도 했던 그는, 지금의 로스쿨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이 매우 중요해져, 자격시험을 추구했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라진 점이 있음을 아쉬워했다. “3학년 학생들이 1년을 변호사시험에 매달리며 보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어요. 예컨대 자본시장법처럼 미국 로스쿨에서는 당연히 거의 모두가 수강하는 중요한 과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는 점 등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 난관이 있었고 로스쿨이 무사히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걱정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학본부와 동료 교수들이 많이 도와준 덕에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며 로스쿨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학생들에게도 로스쿨의 취지를 살려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탐색하며, 법률 전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특히 결국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러나 개중에는 정작 남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결국 여러분들이 큰일을 하려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아무나 남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려면 결국 자기가 나서서 조금은 손해를 봐야 해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한 세대의 시간을 30년이라고 한다. 그 한 세대라는 긴 시간을 오롯이 서울법대와 함께, 그리고 서울법대를 위해 살아온 김건식 교수. 그는 이제 교정을 떠나지만, 그 애정과 당부는 앞으로도 남아 교정을 종소리처럼 울릴 것이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강라민 · 김동훈 기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정인섭 교수는 1995년부터 약 24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특히 국제인권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재일 교포,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에 힘써왔다.

그가 국제인권법을 깊게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원 학위 논문을 쓰면서부터이다. 석사논문 주제를 정할 당시 재일교포 문제가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고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진 데 비해, 법적 구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연구 모임에서 재일교포 문제의 법적 구조에 대한 서현섭 전 대사(현 나가사키 현립대 명예교수)의 설명을 들었고, 서 전 대사가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가이지 학자는 아니니, 누가 계속 이 사안을 공부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십 수 년간 관련 연구를 이어나가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라는 책까지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재일교포 문제가 외국인,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국제인권법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었다.

정인섭 교수에게 연구의 계기를 제공한 서현섭 전 대사로부터는 국제법 학자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전쟁과 평화의 법(The Rights of War and Peace)」의 라틴어본을 선물 받기도 하였다. 이 고서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서암관 1층에 고문서 보관·전시실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정인섭 교수의 관심분야는 국제인권법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근래에는 특히 조약법에 관심이 많아 「조약법의 강의」와 같은 책을 내는 한편, 학교에서 ‘조약법연구’, ‘조약법’ 등의 수업을 진행해왔다. 은퇴를 앞둔 지금도 그의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그는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실현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더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인섭 교수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중시해왔다. 그가 집필한 국제법 교과서, 「신국제법강의」에도 그러한 관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필독서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책이 지금껏 사랑받아 온 이유는 초심자가 읽기 쉽게 쓰였을 뿐 아니라, 책 곳곳에 한국의 사례가 등장하여 현실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본인이 학부시절 전공수업을 들을 때 법학 교과서가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었다며, 학생들이 국제법 공부의 필요를 느끼고 흥미를 갖도록 한국 관련 사례나 국내 법원의 판례를 많이 넣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법 관련 한국 사례를 정리하는 작업이 책의 집필뿐 아니라 향후 국제법 형성에 한국이 기여하기 위해서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인섭 교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나치게 단기의 이득을 생각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스스로가 가장 편하다는 것이다. 현재 수요가 적은 일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격려와 동시에,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인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더불어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많이 늘어난 데 비해 아직 지식을 공급할 집단은 얇으므로,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미래의 국제법 학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밝혔다.

정인섭 교수가 여전히 식지 않은 연구의 열정으로 앞으로도 국제법 학계에 큰 공헌을 하리라 의심치 않으며,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학계에의 기여와 교육자로서의 존경스러운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이소연 · 3학년(10기) 정수아 학생기자

호흡이 긴 연구를 준비하며

윤진수
교수



윤진수 교수는 14년 6개월 동안의 법원 생활 이후 1997년부터 23년 동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재직 중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국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민법의 대가이다. 퇴임을 앞둔 윤진수 교수는 책으로 가득한 연구실에서 “세월이 참 빠르네요.”라는 소탈한 소회와 함께 학생 기자들을 반겨주었다.

1982년에 판사로 임관하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이후 학계로 떠나는 다소 이례적인 행보를 택한 그는 “법관도 보람 있고 중요한 직책이지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로 일한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한다.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가정법원에 근무한 경험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한 가족법 논문이 바탕이 되어 박병호 교수의 후임으로 가족법 강의를 맡게 되었다. “처음으로 강단을 서게 된 건 상속법과 채권총론 수업이었습니다. 첫 강의이다 보니 만들어 둔 강의 자료도 없고, 당시 마땅한 상속법 교과서도 없어서 수업 전날 밤늦게까지 힘들게 강의안을 만들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라며 초년 교수 시절을 회상했다.

윤진수 교수는 우리나라 유수의 학회들을 이끄는 수장이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일화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 학회 회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니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재임 시절 2011년 동아시아민법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동아시아민법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일본·중국·대만의 4개국 민사법학회가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동아시아 민법학자들의 학술교류의 장으로, 지난 2019년 제9회 동아시아민법국제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지요.” 또한 법무부 자문위원, 민법개정연구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등으로서 민법 개정을 추진하던 때의 일화를 묻자 “법을 개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멋쩍게 웃으며, “부모의 치료 거부 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이루어 낸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서울대에서 로스쿨 제도가 자리 잡는 모습을 강단에서 계속 지켜봐 온 그는, 로스쿨 제도에서 실무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우려를 표한다. “실무에 필요한 지식은 현장에서 익혀야 하고 학교에서는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하는데, 도리어 기초를 닦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 판례암기를 중시하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판례의 요지를 아는 것보다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박사 학위를 받은 두 명의 제자(이동진, 최준규 교수)가 서울법대 교수로 임용된 것을 재직 중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꼽는다. 교수로서 제일 중요한 임무가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라 말하는 그는, 여타 법조 직역뿐만 아니라 교수나 학자의 길을 선택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로스쿨 학생들이 가족법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한 윤진수 교수는 “갈수록 가족법 문제가 중요해질 겁니다. 2019년에 친생추정 및 상속법에 관해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나온 것처럼 계속 가족법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며 가족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윤진수 교수는 법관, 교수에 이어 퇴임 이후 제3의 법조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서 2020년 2학기부터는 일반대학원 강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공부와 연구는 계속할 예정”이라는 윤진수 교수는 “자칫 묻혀버리기 쉬운 주제에 관하여 호흡이 긴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드러냈다. “현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나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힌 일들은 누가 특별히 연구하지 않으면 묻혀 버릴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 ‘한국 가족법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 책을 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강라민 · 3학년(10기) 김영서 학생기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자세



박준 교수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국제금융거래분야 전문 변호사로 25년간 활동하였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에서 연구와 강의를 해 왔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재무와 법’, ‘금융거래법’등을 가르친 그는 2012년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학교가 본인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가 양성 교육을 잘하는 것이다. 이에, 사회에 필요한 훌륭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퇴임을 맞이해 훌륭한 동료 선배 교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연구할 수 있었던 점, 강의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이 모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꿈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필요하게 된 것은 그에게 큰 행운이자 도전이었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로 비현실적인 꿈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학교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물론 그러한 결정에는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기반을 닦은 직역을 떠나 학문의 세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법 원리를 탐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에게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었다. 퇴임을 맞이한 지금, 그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학계로 옮긴 것을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법률가를 양성해온 그는 법률가 특히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책임감, 열정, 협동심, 법적인 문제의 해결능력, 공익에 대한 고려’의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법적 지식과 분석 추론 능력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법제도와 법사상,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새로운 생각과 문제접근 방법

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가 강조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자세’는 취미활동과 건강관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40대 중반에 달리기를 시작하여 마라톤 풀코스도 몇 번 완주할 정도로 열정을 쏟았다. 그는 교내 마라톤 동아리 ‘설마’의 지도교수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무슨 일을 하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젊었을 때부터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습관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한다. 또한, 매년 봄 학생들과 함께 10km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면서 학생들을 독려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오늘날, 그는 학생들로부터 “어느 분야가 전망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는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가장 전망이 좋은 분야다. 시류에 휩쓸려 스스로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분야를 전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한다. 덧붙여 그는 제자들이 법률가로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민간부문에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을 비롯하여 정부나 국회 등의 공공부문에서 법률가가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국제적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청년시절로 돌아가도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제일 우선순위로 선택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열정을 드러내며 퇴임 후에도 연구 및 저술활동을 계속하고, 앞으로 몇 년간은 강의도 계속할 계획이다. 매 순간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몸소 실천하는 박준 교수의 행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의 귀감이 되었다. 퇴임 후 그의 새로운 도전이 다시금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김동훈 · 김범준 학생기자

이제는 학생들이 아들, 딸 같아요



김영숙
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학생과 교수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며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있다. 이번 호는 복사실에서 15년간 근무한 김영숙 직원을 소개한다. 그는 법과대학 학부가 있던 시절부터 15동 2층에 있는 복사실에서 학생들의 자료복사, 제본, 출력 등을 담당해왔다.

그에게 일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늦둥이를 낳고 잠깐 일을 쉬던 중 우연히 벼룩시장 글을 보고 오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꾸준한 성격이고 직장을 옮기는 것을 안 좋아해서인지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복사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방학 중에도 같다. 업무량은 찾아오는 손님 수에 따라 달라진다. 방학 중에는 하루 십여 명 정도로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학기 중, 특히 학기 시작 무렵에는 앓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 주된 업무는 복사, 출력, 제본이며, 학위 논문 작업도 한다. 복사나 출력하는 자료의 원본은 주로 그것을 작성한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보관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남기고 가는 경우도 있다. 지난 십여 년간 이런 식으로 많은 자료가 쌓였다.

그에게 근무하면서 느낀 뿌듯한 순간을 물었다. “졸업한 학생들이 박사공부를 하러 다시 오거나 법무관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등 학교에 오랜만에 찾아와서 다시 마주칠 때 너무 반가워요. 또 전화번호가 저장된 친구들도 있는데, 변호사시험 합격했다든지 취업했다든지 이런 기쁜 소식을 알려오면 보람 있고 좋지요.”

반대로 일하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두꺼운 법학 교재들을 복사하다 보니 직업병처럼 손가락 관절이 아픈 것이 있어요. 학생들이 찾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안타깝습니다.”고 답하였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5년간 근무하며 법대의 역사를 지켜본 그에게 그간의 변화를 물었다. “과거에는 수기로 한 필기를 많이 복사해갔지만, 지금은 노트북으로 공부하다 보니 복사 수요가 많이 떨어졌어요. 또 예전에는 제본할 때 손으로 일일이 구멍을 뚫어야 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하는 등 훨씬 쉬워졌지요.”

그는 은퇴시기를 1~2년 후로 예상하였다. 후임자가 잘하겠지만, 업무를 익히기까지 시간이 걸려 학생들의 주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의 말을 남겼다. “여기 학생들은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랑스럽죠.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아들, 딸 같고요. 가끔 공부가 힘들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다들 무척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분명 자기 자신한테 좋은 투자가 될 거예요.”

인터뷰 도중에도 몇몇 학생들이 찾아와 복사와 제본을 맡겼다.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학생들을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이소연 · 3학년(10기) 최고는 학생기자

서울법대 명예의 전당 (Wall of Honor) 리뉴얼 제막식

서울법대 명예의 전당(Wall of Honor) 리뉴얼 제막식이 2019년 9월 20일 서울대 17동 1층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막식은 로스쿨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학교의 현재 모습 및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제막식은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임용 학생부원장 등 교직원 및 후원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장 및 기부증서 증정, 명패부착 및 기념사진촬영, 환영사, 감사인사, 후원금 운영계획 소개, 감사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법대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은 대학발전을 위해 1천만 원 이상 기부한 후원자로, 기부금액에 따라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명예클럽 총 5단계로 분류된다. 현재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총 404개의 현판이 주인을 찾은 상태이며 이후 새롭게 등재될 후원자들을 위한 공간도 확보되어 있다. 또한, 명예의 전당 좌측에는 디지털 영상장치(Digital Signage)를 마련하여 서울법대 구성원 및 방문객들이 기부자 검색, 모금 현황, 예우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승화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울법대 명예의 전당은 서울법대 발전에 기여해주신 후원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건립되었다.”며 “서울법대가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의 법학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후원자분들의 후의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대학이이 공적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를 교육하고 양성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선도적 로스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김보람 학생회장은 입학을 앞두고 어려웠던 사정을 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받게 된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한 시인의 말처럼 ‘너는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수 있다.’는 따뜻한 격려와 믿음의 메시지였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나아가 “그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전하여, 장내를 훈훈하게 하였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1기) 강라인 학생기자

제 1 회 서울법대 가을 리유니언 개최

서울대 우천법학관 다목적홀에서 제1회 ‘서울법대 가을 리유니언’ 행사가 2019년 11월 16일에 열렸다. 소속감과 연대감을 향상시키고 동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본 행사는 로스쿨 1~3기 동문을 대상으로 졸업생들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하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잠시 일터를 떠나 교정으로 돌아온 졸업생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기 및 선후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3년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임용 학생부원장의 사회로 학교 현황과 ‘서울법대 Next Decade’를 소개하며 시작되었다. ‘서울법대 Next Decade’는 서울법대가 지난 10년간의 로스쿨 정착기를 거친 후, ‘교육혁신을 통한 근본적 타개책 모색’, ‘공적 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현 교수를 연사로 하여 “건축가의 생각 방법”이라는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장승화 원장의 축사 후에는 자유롭게 오찬을 즐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3기 김준영 졸업생의 감사장과 기부증서 수여 이후에 ‘졸업생들이 다시 뵙기를 희망하는 은사님’ 세 분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윤진수, 정순섭, 천경훈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한 수업시간에서

의 일화를 떠올리면서,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졸업생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조인’으로 성장해나가기를 당부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모의 법정대회 결승전에 참관하여 재학생 후배들이 실력을 뽐내는 모습을 호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기도 했다.

서울법대 리유니언 행사는 앞으로 5년 주기로 개최될 예정으로, 졸업생들이 오랜만에 학교를 찾아 학생 시절의 열정을 되새기며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10기) 김영서 학생기자



제1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19년 11월 16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1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 결승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모의법정 대회는 서울대 로스쿨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마련한 대회이다. 특히 위 대회의 특징은 로스쿨 2학년 재학생 전원이 수강하는 '모의재판' 과목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모의재판'은 총 8개의 분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분반에는 현직 로펌 변호사들이 지도변호사로 배정되었다. 당해 수업에서 재판 실무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받은 수강생 전원이 3~5인의 팀을 이루어 예선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총 8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토너먼트로 8강과 4강 대회를 치렀다. 결승전에는 4강에서 승리한 두 팀(총 9인)이 참여하였다.

결승전은 서울법대 출신 전·현직 대법관인 김소영, 김용덕, 양창수 전 대법관과 김재형 대법관이 심판으로 참여해 진행하였다. 원고팀(김보연, 김다빈, 송희권, 여인영)과 피고팀(김민혜, 이도감, 이동명, 전세은, 최다솜)은 원고의 냉동배아의 사용권 확인 청구 및 조형물 철거 청구를 두고 치열한 경연을 벌였다. 공방 끝에 우승은 원고팀에게 돌아갔으며, 대회가 끝난 후 본선 진출팀 전원에 대한 시상과 선후배들이 모두 함께 하는 만찬이 진행되었다. 아래는 우승팀인 원고팀 4인과의 1문 1답이다.

Q. 제1회 우승자이니만큼 기쁨이 남다를 것 같다. 우승 소감은?

여인영: 처음부터 우승까지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직접 구술변론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승에 대한 욕심이 났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전·현직 대법관님들께서 직접 재판관으로 오신다고 하시고, 2학년 동기들도 전원 참석하는 자리라고 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다. 첫 우승자가 되어 영광스럽다.

김보연: 대회가 끝나고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법조인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덕담을 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해 주시고, '재밌게 봤다, 기특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상을 받은 것 같다.

Q. 대회 주제나 결승전과 관련해서 대법관님들 및 교수님들께서 들은 평가가 있다면?

송희권: 김재형 대법관님께서 실제로 법정에서 우리(원고팀)와 피고팀의 공방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원고가 패소할 소지가 크다고 말씀해주셨다. 하지만 이 대회의 목적은 소송실무연습에 있기 때문에, 출제된 문제의 특징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보셨다고 한다. 대회와 실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김보연: 우승 후에도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출제자이신 이계정 교수님께 대회 준비하는 동안 궁금했던 점을 여쭙봤었다. 조형물 철거 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원고팀)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모두 하였는데, 원피고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인격권에 관련해서만 하는 것이 옳은가 등 많은 의문이 있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인격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의문점들 때문에 문제를 이처럼 출제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답이 모호한 문제들에 대하여 찾아 나가는 과정이 결국 법정 공방의 진면모라는 점을 배운 것 같다.

Q. 변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인가?

김다빈: 대회 때 실제로 활용한 논거는 아니지만, 조각상 철거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조각상을 보관할 곳이 없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조각상 철거 및 이동에 드는 비용을 추산했었다. 이를 위해서 조각상을 옮길 예정이 있는 고객인 것으로 가장하여 지게차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하기도 하였는데, 그 모든 과정이 가장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송희권: 냉동배아 사용권 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서 중 특정 조항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정 조항이 현재 표준 지침에는 없는 조항이어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해석론이 타당함을 논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굉장히 갈렸는데, 그 견해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생명윤리법뿐 아니라 민법 등 관련 법률들을 통섭적으로 보아야만 했다. 나중에 실무에서도 이런 경험을 빈번하게 하게 될 것이므로 좋은 참고가 될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대회는 '모의재판' 수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서울법대 출신인 정원 변호사가 지도변호사였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점들을 지도 받았는가?

김보연: 수업 중 법리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론을 말씀해주셔서 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법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사례를 통하여 새롭게 법리를 창출했는지를 보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배웠다.

여인영: 해외 판례가 있는 경우에도 무비판적으로 베껴 쓰기보다는 우리의 유사한 법리들을 끌어와서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기억에 남는다.

Q. 제2회 대회를 위한 제언이 있다면?

김보연: 김재형 대법관님 말씀처럼 청구취지가 피고에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8강에서 실제로 4강에 진출한 4개의 팀이 전부 피고 측이었다고 한다. 물론 승패는 청구의 인용 여부보다는 변론 과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보다 팽팽한 주제가 출제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 두 청구취지가 모두 피고 입장이 유리한 주제였다고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승패를 알기 어려운 주제가 출제되면 좋을 것 같다.

제1회 모의법정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앞으로 모의법정 대회의 발전과 대회를 통한 학생들의 실무능력 성장 가능성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10기) 정수아 학생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2018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2019년 8월 29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식사, 축사, 답사, 학위수여, 교가제창, 폐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승화 원장은 “오늘은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는 날입니다. 학위수여식을 ‘Commencement’라고 하는데 이는 인생의 한 매듭을 짓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서 어느 길을 걷든 각자의 자리에서 서울법대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길 바랍니다.”라며 축사를 보냈다. 이어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동료에 대한 배려심으로 협력하는 같이 일하고 싶은 법률가로 성장해야 합니다.”는 당부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법대에 입학할 당시의 꿈을 잊지 말고 미래의 자신에게 담당할 수 있도록 그 꿈을 위해 지금부터 새로이 노력해야 합니다.”라며 축사를 마쳤다.

조대연 서울법대 동창회장은 “Fiat justitia, ruat caelum”의 정신으로 한국법학의 요람인 모교의 영예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졸업생들이 동창회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법학박사 15명, 법학석사 24명, 법학전문박사 2명, 법학전문석사 1명을 포함하여 총 42명에 대한 학위수여가 이뤄졌다.



제2회 SNU - U. Tokyo Joint Workshop on Civil Law 개최

2019년 8월 31일 서울대와 동경대 간 제2회 민법 Joint Workshop이 서울대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숍은 서울대 윤진수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경대 Akira Kamo 교수의 발표 및 토론, 서울대 이계정 교수의 발표 및 토론 이후 동경대 Dogauchi Hiroto 교수의 폐회사로 끝을 맺었다.

Akira Kamo 교수는 ‘일본 사법의 관점에서 본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이슈(Legal issues in cryptocurrencies from the viewpoint of Japanese private law)’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Akira Kamo 교수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기술적 배경, 이념적 배경에 관하여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이나 소비자 보호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토의는 서울대 이동진 교수의 주도하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일본의 세 가지 학설, Mt. Gox 파산 케이스에서의 동경 법원의 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계정 교수의 ‘유치권의 남용과 한국의 동향(The abuse of lien and the reaction in Korea)’의 발표가 있었다. 이계정 교수는 한국과 일본에 규정된 유치권 조문을 비교한 후,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권의 남용 문제에 관한 법원의 반응을 분석한 후, 유치권에 관련된 민법 개정안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후 토의는 동경대 Masami Okino 교수의 주도하에 일본과 한국에서 유치권 분쟁 및 관련 법적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7회 서울법대-프라이부르크법대 심포지엄

2019년 9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제7회 서울법대-프라이부르크법대 심포지엄’이 “역동적 사회에서의 법률 이론과 해석(Legal Theory and Interpretation in a

Dynamic Society)”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장승화 원장과 Jan von Hein 프라이부르크 법대 원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이번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26명의 연사가 6개의 세션에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나누며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2019년 서울법대 한마당

2019년 10월 1일 서울대 17동 앞 광장에서 ‘서울법대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모든 서울법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서울법대 한마당 행사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옷놀이 대항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제학생들과 함께 세계의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국제부스가 운영되고,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트램펄린이 설치되는 등 학생들은 잠시나마 학업을 잊고 학우들과 동지애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9년 가을맞이 점심

2019년 10월 21일 서울대 서암관에서 ‘가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생 및 교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장승화 원장은 “가을을 맞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즐기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캠퍼스에 가득한 가을 기운을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이날 행사는 자유로운 스탠딩 파티로 준비 되었으며, 많은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제13회 BESETO Conference 개최

제13회 BESETO Conference - “Comparative Legal Studies in East Asia”가 2019년 11월 1일 서울대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컨퍼런스에는 동경대, 북경대, 서울대의 법학 교수들이 참석하였고, 각 세션별로 두 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동경대 Ryuji Yamamoto 교수가 “The Influence of Comparative Law on Chinese Criminal Law: A Historical Perspective”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두 번째로 발표를 맡은 서울대 강광문 교수는 “The Meaning of the Judicial Power(司法權) in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of Korea - In Comparison with Japan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세션에서 이루어진 동경대 Taro Nakahara 교수의 “Japanese Tort Law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 Especially in Regard to “Loss of a Chance” Theory -” 발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일본의 불법행위법을 다루었으며, 다음으로 북경대 Gao Wei 교수의 “The Success and Failure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발표는 온라인 분쟁 해결의 성공과 실패를 주제로 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동경대 Gen Goto 교수가 “Diversity of Stewardship in Asia: Faux Convergence”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서울대의 오영걸 교수는 “The Concept of ‘Equitable Ownership’ Revisited - An Epistemological Black Hole in East Asian Comparative Trusts Law -”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졌다.



후배사랑 변호사 시험 응원 캠페인 ‘걱정마Law’

2020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9회 변호사 시험이 시행되었다. (재)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은 로스쿨 1~8기 동문 선배를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제9회 변호사 시험 수험생에게 선배의 이름과 응원 메시지가 동봉된 도시락을 지원하였다.

148명의 1~8기 로스쿨 선배들의 참여로 총 6,098,500원이 모금되었으며, 4일간의 변호사 시험 일정 동안 총 636개의 도시락이 지원되었다. 학회회 소속 재학생 후배들이 도시락 전달에 참여하여 수험생 선배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보냈다.

본 캠페인은 법인기부·고액기부 중심의 재단 모금구조를 개선하여 소액·다수 참여 기부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후배들을 위한 선배들의 사랑으로 최종 모금액은 목표액을 상회하였다. 행사 진행 후 남은 금액은 (재)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에 법학전문대학원 위임기금으로 적립되어 학생들의 교육지원 및 장학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금 캠페인을 통하여 로스쿨 동문 간 따뜻한 교류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법대 美 남가주동문회에서 ‘Next Decade’ 미션 선포

서울법대 남가주 동창회 모임이 2020년 1월 28일 LA에서 열렸다. 미국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법대 동문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재확인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 장승화 원장은 Next Decade 미션의 목표를 밝히며 남가주 동문들의 지원을 부탁했다.

Next Decade 미션은 법학전문대학원 10주년을 맞아 다가올 2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했다. 서울대의 국가적·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며, 법학 소양을 바탕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 및 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동문들과 사회 각층이 보내는 기부금이 사회공헌기금, 교육장학기금, 학술연구기금, 일반기금으로 운영되어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승화 원장은 Next Decade 미션을 설명하며, “많은 미주 동문들이 대학을 다녔던 60-70년대에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중요한 화두였지만, 지금은 공정·분배·복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서울법대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는 대학원 1학년부터 대형 로펌에서 인턴 오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면, 이제는 달라진 시대에 발맞춰 로스쿨에서의 법학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의 시작을 강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법학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법대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런 일환에서 장승화 원장과 임용 부원장은 지난해 공익법률센터를 설립하고 재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공익법무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관련 공익소송 및 입법정책 등 프로보노(pro bono)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하고, 법조인이 된 후에도 사회적 기여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장승화 원장은 “매년 우수한 학부 졸업생 150명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데, 이들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대 로스쿨 1학년 전원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 참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전원은 2019년 2학기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공기관, 공익단체들과 더불어 총 26개에 달하는 공익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했다. 종전에는 로펌, 법원, 검찰 등 취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법무실습 학점을 취득해 왔다. 그러나 서울법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2019학년도 신입생들부터 공익기관에서의 실습에 한하여 법무실습 학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제1회로 진행된 이번 공익법무실습은, 2019년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교육으로 시작되었다. 1학년 전원이 필수로 참여한 이번 사전교육에서는, 서울법대 교수들의 강연과 함께, 현장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패널토의도 이루어졌다. 이후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공익프로젝트 수행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주민센터 등 시민단체부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등의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법적 사고방식’을 현실에 적용해볼 수 있어 좋았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공익성 및 사회적 효용을 느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공익법무실습을 통해 총 162명의 학생들이 세계식량계획을 비롯한 20여개의 공공기관, 공공단체들과 협업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로스쿨 졸업 후 공익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도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학기 비대면 강의

2020년 3월 16일부터 온라인 개강을 시작한 서울대학교는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2020년 1학기 이론 수업은 종강 시점까지 비대면 강의 형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과목별로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온라인 중간고사, 과제 대체 등 다양한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기말고사의 경우 학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하게 되어 있어, 추후 일정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방식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비대면 수업기간이 연장되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기간 동안의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첫째로, 수업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거나 영상을 임의로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둘째로, 동영상 강의 경우 다운로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강 시 진도 체크가 되지 않는 것을 주의하여야 하고, 셋째로,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 시 인권 침해성 언행을 금지하며, 그 외에도 ZOOM을 이용한 강의에서 출석 확인을 위해 참가자명에 학번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당분간 단체 모임 등을 자제함으로써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초청강연

제49회 서울법대 초청강연 김형연 법제처장

2019년 9월 9일, '제49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서울대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이 연사로 나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 가는 공정한 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100

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법치주의 정신과 인권 존중 의식에 입각하여 어떻게 법률을 다듬어 왔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의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구체적인 법령 및 판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법제처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남겼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대법원 판례의 변천에 법제처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왔는지를 설명하며, 법제처의 역할이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법기관 못지않게 다양하고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제50회 서울법대 초청강연 Geoffrey Tao-li Ma 홍콩특별행정부 중심법원수석법관

2019년 9월 23일, '제50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서울대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에는 Geoffrey Tao-li Ma 홍콩특별행정부 중심법원수석법관이 연사로 나서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rule of law in society'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서 Geoffrey Ma 수석법관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양한 예시를 들어 강조하였다. 특히 자신이 생각하는 법치주의의 요건들, 즉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법률이 존재할 뿐 아니라 독립되어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부가 존재할 것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요건을 여섯 가지로 상세하게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바람직한 법치주의가 어떻게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Geoffrey Ma 수석법관은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응당한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법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제51회 서울법대 초청강연 박종우 서울지방법변호사회장

2019년 9월 26일, '제51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서울대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에는 박종우 서울지방법변호사회장이 연사로 나서 '변호사 업무와 변호사 단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에서 박종우 회장은 먼저 변호사 업무에 관하여 변호사가 의뢰인과 사건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내변호사의 전망과 단점은 무엇인지, 변호사법의 주요 조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나아가 변호사단체의 종류,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주요 업무, 변호사 단체가 나아갈 길, 국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을 주제로 하여 변호사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박종우 회장은 변호사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편을 가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를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제52회 서울법대 초청강연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2019년 10월 1일, '제52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서울대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에는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연사로 나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판결 및 동향(ICC Judicial Workflow)'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에서 정창호 재판관은 먼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차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신,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인정의 근거가 되는 다자조약인 로마규정(Rome Statute)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의 독특한 전심 제도와 아시아태평양인권재판소의 구상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정창호 재판관은 국제사회가 한국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크다고 하면서 국내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제 경쟁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기를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민법의 경제적 분석’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민법의 경제적 분석’을 대주제로 하여 2020년 2월 7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중길홀에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의 제1부에서는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신탁의 경제적 분석과 효용’을,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자로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전원열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참여하였다. 제2부에서는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하자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을,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불법행위법상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책임: 법적·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각각의 발표에 대해 최봉경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국내의 법경제학 연구가 아직까지 주로 미국에서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문제나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법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해 보는 뜻깊은 자리로 되었다.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019년 11월 15일 차세대 신진학자인 싱가포르 Alan Koh(Nanyang Technological Univ.)교수와 일본 Zenichi Shishido(Hitosubashi Univ.)교수를 초청하여 주전공 분야인 폐쇄회사에 관한 강연을 듣고 특히 소수주주 보호수준과 탈퇴권에 관해 토론함으로써 참석한 국내 학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의 계기가 되었고 한국법의 개정방향에 관하여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음악산업의 현황과 저작권법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는 2019년 11월 8일 웨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음악산업의 현황과 저작권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조지메이슨 대학교 Sean M. O'Connor 교수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조재영 교수(청운대 광고홍보학과)가 ‘음악 산업과 저작권’, 객재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음악산업에서의 라이선스’, 오혜진 변호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18회 국제학술대회 ‘지능형 연결시대: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현재와 법적 과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19년 9월 6일 호주 시드니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지능형 연결시대: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현재와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제18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 유럽에서의 논의 현황, 제2부 미국과 아시아-태평

양에서의 논의 현황, 제3부 종합토론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독일·오스트리아·영국·미국·호주·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방책과 지혜를 나누는 열린 토론의 장을 진행하였다.



제69회 & 제70회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19년 10월 11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이라는 주제로 제69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강형철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 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성욱제 그룹장(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이 ‘해외 주요국의 미디어 다양성 논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윤석민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김태오 교수(창원대 법학과), 이창희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양한열 국장(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정수영 박사(MBC 정책협력부 전문연구위원), 김대훈 사무총장(한국IPTV방송협회), 공대인 대표(KCTV 제주방송)가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019년 10월 19일 (사)유럽헌법학회, 한양대 공공안전정책연구센터와 공동 주최로,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시민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70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광윤 고문((사)유럽헌법학회)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주제 “정보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 제2주제 “방제법제 정비를 위한 민간가설주택에 관한 고찰”, 제3주제 “소셜 미디어 규제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관한 일고”, 제4주제 “국민발안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2019년 11월 30일, 저널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를 발행하였다.



제13회 ‘시민사회와 법의대화’ 공개강좌 수료식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2019년 11월 27일 제13회 ‘시민사회와 법의대화’ 공개강좌의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담당교수: 홍진영 교수) 제13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강좌에서는 특별히 세계아동권리선언 60주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 심의가 있는 해를 맞이하여, ‘아동 인권’을 강좌 주제로 선정하였다.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학계, 법조계,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이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시민사회의 활동가, 법조인을 포함한 전문가,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 및 학생 등 37명이 수강하였고, 총 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제13회 ‘국제인권법’ 공개강좌 수료식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2019년 11월 27일 제13회 ‘국제인권법’ 공개강좌의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담당교수: 신윤진 교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현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13년째 진행된 이 강좌는 총 8주간 국제인권법관련 학자, 법조인 및 국제기구와 NGO 종사자들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교내외 대학(원)생 총 173명이 수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5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세계 속의 법원, 그리고 법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혜민 판사 초청강연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와 국제법무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2019년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혜민 판사를 초청하여 ‘세계 속의 법원, 그리고 법관’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하였다. 국제관계 속의 법원의 역할, 국제거래사건의 재판업무, 앞으로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노력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의욕과 동기를 부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법의 발전과 전망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19년 11월 15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법의 발전과 전망’이라는 대주제 하에 이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경제법학회)의 개회사,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과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1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동향과 소비자의 법적 보호’라는 주제로 최요섭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와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하였고,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이오문 부사장(이베이코리아), 박성우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비자법 집행 과제’라는 주제로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유영국 박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 발표하였고, 석광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성주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하와이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협의를 등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에서는 이재협 교수가 2020년 1월 29일 하와이자연자원연구소(Natur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 Authority)를 방문하여 서울대 공대, 인코어드, LG전자와 함께 추진 중인 하와이섬에서의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하와이주대법원에서 열린 ‘Judiciary and the Environmental Rule of Law’ 심포지움에 하와이 에너지법 인턴십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미래를 향한 인공지능 정책: 우리는 AI를 신뢰할 수 있을까?’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각종 법적, 정책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9년 8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회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는, 점차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신뢰성(trust)과 공정성(fairness)의 구현’을 대주제로 삼았다.

제1세션에서는 신뢰성에 집중하여 인공지능이 대중의 신뢰를 받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구조를, 제2세션에서는 공정성에 집중하여 공정한 인공지능의 의미와 구현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는 관련 분야 권위자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토론의 장을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션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초연설을 2개씩 배치한 점이 특징일 만하였다.

이번 제3회 컨퍼런스에서도 명망 있는 국내외 관련 분야 인사들을 초빙하여 논의의 수준과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축사를 담당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OECD 인공지능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여를 한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다. 그밖에 기초연설자들도 학계와 실무 영역에서 각기 최고 수준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을 섭외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현재 인공지능 분야의 학계를 선도하는 이들로, MIT R. David Edelman 교수는 수년간 백악관에서 IT 정책을 직접 입안하였을 정도로 실무와 학계를 두루 경험한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버클리 Deirdre Mulligan 교수 역시 프라이버시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업적을 쌓은 명망 있는 학자이다.

제2세션에서는 현재 인공지능 분야의 실무를 이끄는 이들로, Fredrik Heintz is Linköping 대학교 교수이면서 유럽연합 인공지능 고위전문가 그룹(EU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소속된 전문가이고, Blaise Agüera y Arcas는 구글의 인공지능 실무를 이끄는 수석과학자이자 기술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밖에도 미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널리 인정받는 중진 및 신진 학자들을 고루 초빙하고, 기술이나 법 분야 전문가 외에도 철학을 전공한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현섭 교수를 섭외함으로써 학문의 장벽을 넘나드는 종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나아가 학계를 넘어 정부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입장도 경

청할 수 있도록 초청연사의 배경을 다양화하였다. 이에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학, 경제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배경을 가진 4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미디어 알고리즘과 민주주의’ 학술세미나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의 연구 프로그램인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공유하기 위한 장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9년 11월 7일 메리츠타워 D2 Startup Factory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알고리즘이나 프로파일링이 작동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종종 언급되는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나 필터 버블(filter bubble) 효과 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알고리즘과 관련된 투명성이나 설명가능성의 개념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검색 중립성이나 인터넷 중립성 등 ‘중립성’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는 정기적으로 콜로키움을 기획·개최하고 있다. 센터는 2019년 10월 26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칸트의 실천철학의 기초 - 자율성과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21회 콜로키움을 한국법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임미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였고, 손제연 강익조교수(서울대 기초교육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019년 11월 26일에는 서울대 17동 서암홀에서 ‘메타피지컬 클럽’으로 반추해 보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22회 법이론연구센터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변호사(전 대법관)가 콜로키움 주제를 ‘사회적 갈등 조정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부제 아래에서 발표하였다. 이날 콜로키움은 루이스 매넨드(하버드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의 저서 <메타피지컬 클럽>에 등장하는 4인의 클럽 회원, 즉 윌리엄 제임스, 찰스 샌더스 퍼스, 올리버 웬들 홈즈, 존 듀이가 집대성한 미국의 프래그머티즘 철학 또는 법사상을 되돌아보면서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같이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울촌 법이론연구총서 출간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는 법무법인 울촌과 함께 2019년에 ‘울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세트(신국판 양장본, 도서출판 길)를 출간하였다.

1권은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은 <로마법의 향연>이다. 법학의 원류이자 우리 법의 모태인 로마법을 다루고 있으며 개론, 인법, 물건법,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나눠 로마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했다. 2권 <법복 입은 정의>는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짓고 이민열(한국방송통신대 법학 교수)이 옮겼다. 법의 개념부터 법실증주의, 실용주의, 원본주의 비판론, 합법성에 관한 타당한 관념에 따른 법 해석 등을 소개했다. 3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은 프레데릭 사워가 쓰고 김건우(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양학부 법학 교수)가 번역했다. 법률가는 법에 따른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올바른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숙제를 풀어냈다. 저자는 법 형식의 가치와 의의를 존중하되 법의 자유로움도 간과하지 않는 절충점을 찾는다.



Renmin University of China-Seoul National University 2nd Young Law Faculty Conference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중국의 Renmin University와 2020년 1월 10일에 제2회 공동학술대회를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의 주제는 ‘Current Legal Issues in Korea and China’로 한국과 중국에서 논의되는 최신의 법률연구들을 발표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제1세션에서 ‘헌법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검찰 개혁’, ‘중국의 택시 시장과 택시 라이선스 제도에 대한 분석’이 발표되었고, 제2세션에서 ‘중국의 Guiding Cases Project에 대한 논의’, ‘표준계약에서의 불공정 거래 규제’가 발표되었다.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

2019년 10월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이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최로 진행되었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리걸클리닉협의회가 주관하였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으로 제1주제 ‘리걸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제2주제 ‘국내 리걸클리닉 운영사례’, 제3주제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간 교류 협력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장승화 원장과 이해관 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와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번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장승화 원장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인양성을 위한 대학의 강화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임상법학을 비롯한 경험적 교육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스쿨에서의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심포지엄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순석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개소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창립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양하여 전문성과 공익정신이 충만한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보냈다.



공개강좌 소식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제38기 수료식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제38기 수료식이 2019년 12월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과정은 공정거래법과정 제14기 '4차산업혁명과 경쟁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이수증서 및 상장 수여, 기부금 기탁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임교수인 이봉의 교수의 축사에 대한 답사는 이번 과정의 자치회장인 정영식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최고지도자과정(ALP) 제29기 수료식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 제29기 과정이 2020년 3월 3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 9월 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에는 법조인들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총 41명이 수료하였다.



공모

서울법대 학봉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 장학회가 후원하는 학봉상이 올해 제5회 논문공모를 시행한다. 공모사업은 기존의 연구논문 부문 외에 법학논문 부문, 언론보도 부문의 2개 부문을 신설하여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5회 학봉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성원 간 불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정치, 사법, 언론, 기업'을 연구논문 부문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언론보도 부문의 주제로는 "한일관계"가 선정되었으며, 법학논문 부문은 법학분야 자유주제로 공모가 진행된다.

논문 및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은 2020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총 상금은 1억 원 내외이다.

문의

이메일. hakbongprize@snu.ac.kr

우편.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07호
학봉상 운영위원회 사무국

전화. 02) 880-6866

홈페이지. http://law.snu.ac.kr/hb_award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원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人を 양성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人を 양성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人を 양성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1. 세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2. 네이밍 예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3.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구좌(1만원)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1. 온라인 기부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http://secure.donus.org/snulaw>
(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온라인 기부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2.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로 연락주시면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화. 02.880.2448

이메일. lawgiving@snu.ac.kr

카카오톡 채널. [snulawfund](https://open.kakao.com/o/snulawfund)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10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예우 안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패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미술관,박물관,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 기 금 출 연 현 황

2019. 8. 1 — 2020. 4. 30

1 억 원 이 상		한화손해보험(주)			43,000,000	김미영	신주영	전우석
		한화에너지(주)			43,000,000	김민정	신준섭	전은주
		한화자산운용			43,000,000	김서경	신철민	전일호
김·장 법률사무소	200,000,000	한화첨단소재(주)			24,000,000	김서연	안재민	전하영
법무법인(유) 광장	100,000,000	한화케미칼(주)			24,000,000	김성진	안태영	전혜진
법무법인(유) 올촌	201,500,000	한화투자증권			43,000,000	김시정	안학범	전효빈
법무법인(유) 태평양	100,000,000	현대엘앤씨(주)			19,000,000	김연진	오수비	정다연
법무법인(유) 화우	200,000,000					김용혁	오윤선	정명하
최경준	350,000,000					김유진	오현지	정병기
현옥순	100,000,000	1 백 만 원 이 상				김은집	오혜인	정선아
5 천 만 원 이 상		(재)송복은장학재단			6,000,000	김정민	우아미	정승기
		강용현			3,000,000	김정현	우한얼	정원혁
ALP 29기	50,000,000	김용섭			5,000,000	김지수	원대성	정의진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50,000,000	서암 윤세영 재단			3,250,000	김지애	원우현	조민정
안용석	50,000,000	안성조			1,000,000	김진건	유석호	조형범
한화(주)	86,000,000	이범재			1,000,000	김혜린	유승진	주신영
1 천 만 원 이 상		이의영			5,270,000	김효정	유현정	지용환
		재단법인 청파장학재단			6,649,000	나희정	유홍수	진형원
Seoul Chambers	10,000,000	청호불교문화원			6,649,000	남연진	윤동영	차영선
고광선·양남주	10,119,031	한귀희			1,164,860	노성건	윤아현	최보경
곽종훈	10,000,000	한봉희			5,000,000	노승민	이가홍	최보규
금진호	10,000,000	후원자00768			2,000,000	노호경	이경준	최정윤
김교창	10,000,000	그 외 도 움 을 주 신 분 들				류승훈	이규철	최지석
박경조	10,000,000					문성원	이나현	최초록
백제흙	10,000,000	강민구	방윤섭	이주락		문예원	이민주	최하늘
법무법인(유) 지평	12,500,000	강보라	백지원	이준구		문준영	이상률	표슬비
소화장학재단	15,000,000	강세원	서희송	이진솔		민보현	이상혁	하정민
유한회사 피피원	10,000,000	강예은	석소현	이한길		박기현	이석원	한준희
익명	14,500,000	강준모	석희재	이현선		박기훈	이소은	한효명
임용	12,601,559	강태승	성아윤	이혜인		박미소	이소현	현연지
장승화	45,546,530	강혜림	손형민	임규선		박상록	이수안	호성식
조국	10,000,000	고상록	송서운	임동규		박상욱	이예슬	홍석재
청파장학재단	13,298,000	곽경민	신동승	임동민		박상진	이원석	홍승희
최현진	14,000,000	구본효	신동일	임지석		박시우	이유미	황동하
한국도선사협회	40,000,000	권영준	신병진	장윤정		박윤민	이유영	황승환
한화디펜스(주)	43,000,000	기이한	신수영	전두영		박정현	이유진	
한화생명보험(주)	43,000,000	김광현	신용식	전보람		박지수	이윤진	
한화석유화학(주)	19,000,000	김말금	신은령	전상용		박형근	이재성	
						박민주	이종준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